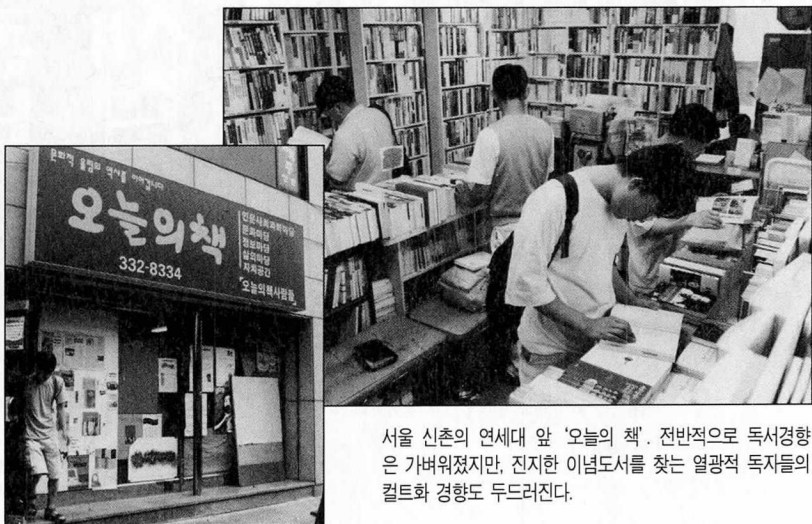


독서의 연성화, 이념도서 독자의 컬트화

대학가 서점에서 본 요즘 대학생들의 독서경향



서울 신촌의 연세대 앞 '오늘의 책'. 전반적으로 독서경향은 가벼워졌지만, 진지한 이념도서를 찾는 열광적 독자층의 컬트화 경향도 두드러진다.

한때 우리나라 대학가의 인문사회과학 서점은 또 하나의 학교였다. 마르크스·엥겔스의 원전과 의식화 교재를 공급받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통로였다. 하지만 90년대 말 대학가 서점은 점차 그 특권을 상실해가고 있다. 공권력의 압수수색은 옛말이고 일반서점과 차별성도 점차 사라지고 있다. 그럼에도 비주류를 지향하는 대학가의 전통은 여전히 그 맥을 이어가고 있다.

대학가 인문사회과학 서점에서 자체 집계하는 베스트셀러 목록을 보면 크게 두가지 경향이 눈에 띈다. 일반독자와의 경계가 허물어진 독서의 '연성화'가 그 하나라면, 90년대식 좌파문화를 이끄는 인문사회과학 독자의 '컬트화'가 또 다른 하나다. 대형서점과 마찬가지로 대학가 서점에서도 《블게이즈@생각의 속도》·《일식》·《오체불만족》·《한반도》·《지금 알고 있는 것을 그때도 알았다더라면》 등이 인기를 얻고 있다.

비주류의 강력한 비판정신

대학가에서는 이런 유행성 베스트셀러와 함께 대학가만의 베스트셀러가 따로 있다. 요즘 뜨고 있는 인문서는 단연 홍세화의 《세느강은 좌우를 나누고 한강은 남북을 나눈다》(한겨레신문사)와 조지 카치아파카스의 《신좌파의 상상력》(이후), 에릭 홉스봄 외의 《제3의 길은 없다》(당대), 임지현의 《민족주의는 반역이다》(소나무), 김경일의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바다출판사) 등

이 그 뒤를 잇는다.

이들을 하나로 아우르는 것은 강력한 비판정신. 1968년 학생들이 주축이 된 5월혁명을 분석한 《신좌파의...》이 소비에트 맑스주의의 객관적 유폴론을 넘어서 개인적 자유의 존엄성과 사회적 정의의 가치를 복원시켰다면, 《제3의 길은...》은 유럽 중도좌파의 이데올로기로 자리잡은 기든스의 '제3의 길' 노선이 초월적 정치를 꿈꾸는 허구적 정치 프로젝트일 뿐이라는 비판을 담고 있다.

한편 홍세화·임지현·김경일의 책은 공격지점이 각각 다르지만, 우리사회의 지배질서에 대한 '타자'의 목소리가 깔려 있다. 홍세화는 20여년 동안 망명객으로 떠돌면서 바라본 한국사회의 뻘뻘스러움, 약삭빠른 냉소, 절망과 체념의 신음소리를 비판한다. 임지현과 김경일은 각각 편협한 민족주의와 망국적 유교주의를 뒤집어본다. 고정관념에 도전하는 비주류의 발언이 여전히 대학생들 사이에서 호소력을 지님을 확인할 수 있다.

진보진영에 대한 비판과 옹호를 담은 책들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한총련을 위한 변명'을 부제로 단 최진섭의 《희망에 반하여 희망하라》(살림터), 80년대 운동권문화를 복원한 김원의 《잊혀진 것들에 대한 기억》(이후) 등이 대표적이다. 제도언론과 인물비평서, 신자유주의에 대한 비판서 등도 목록에 올라 있다. 《조선일보를 아십니까》·《조선일보 공화국》(개마고원), 《자유라는 화두》(삼인)·《인물과 사상10》(개마고원), 《작은 풍요》(이후) 등이 그것이다.

철학분야에서는 이정우의 《시물라크르의 시대》(거름)가 스테디셀러로 자리잡을 전망

이다. 들뢰즈의 철학을 강의한 이 책은 동서양의 철학조류를 넘나들면서 난해한 후기구조주의 철학을 알기 쉽게 풀이해 독자들에게 사랑받고 있다. 문학에서는 신경숙·은희경이 고정독자를 확보하고 있고 황지우·기형도·곽재구·김기택의 시집들도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다.

대학가 베스트셀러 목록의 두드러진 특징 중의 하나는 소위 의식화 교재나 세미나 자료로 이용되는 스테디셀러가 베스트셀러에 상당부분 올라 있다는 것이다. 《다시 쓰는 한국 현대사》(돌베개)·《청년을 위한 한국 현대사》(소나무) 등의 역사서, 《철학의 기초이론》(백산서당)·《철학과 굴뚝청소부》(새길) 등의 철학서, 《페다고지》(한마당) 등의 교육서, 《경제학의 기초이론》(백산서당)·《청년을 위한 경제학 강의》(한겨레신문사) 등의 경제학서 등이 입문서로 꾸준히 읽히고 있다.

인문사회과학 독자의 컬트화 경향

대학가에서 최고의 스테디셀러 작가는 신영복이다. 그의 《감옥으로부터의 사색》·《나무야 나무야》(돌베개)는 새내기 선물용으로 그 수요가 끊이지 않고 있다. 청년 노동자의 삶과 죽음을 그린 《전태일 평전》(돌베개)도 부동의 스테디셀러다. 80년대 이념의 시대를 주도했던 변증법과 유폴론, 소비에트 원전들은 거의 자취를 감췄지만, 박종철출판사에서 펴내는 《공산주의 선언》·《칼 맑스·프리드리히 엥겔스 저작선집》 등의 원전을 찾는 학생들도 여전히 많다. 최근 출간된 가라타니 고진의 《마르크스 그 가능성의 중심》(이산)도 찾는 이들이 늘고 있다.

각 대학의 전통과 학풍, 그리고 주변환경에 따라 서점마다 베스트셀러 목록도 조금씩 다르다. 서울대 근처의 '그날이 오면'은 사르트르의 《지식인을 위한 변명》(한마당), 서울대 총학생회에서 펴낸 《시작》과 카피레프트의 《읽을꺼리》가 눈에 띈다. 고려대 앞의 '장백'에서는 이교관의 《누가 한국경제를 파탄으로 몰았는가》(동녘)와 마르크스·레닌의 원전 3권이 목록에 포함돼 있다. 신촌의 '오늘의 책'에는 여성문화이론 연구소에서 엮은 《여성 이론》(현실문화연구)과 백기완의 《벼랑을 거머쥔 슬뿌리여》(백산서당)가 올라 있다.

성균관대 앞 '논장'에서는 생태주의적 세계관을 담은 《오래된 미래》(녹색평론사)가, 서강대 근처의 '서강인'에서는 《독립영화만들기》(황금가지)가 도드라져 보인다. 중앙대 앞의 '청맥'에서는 대안교육을 모색하는 《학교를 넘어서》(민들레)가 인기를 얻고 있다. 여성을위한모임에서 펴낸 《제3의 성 중년여성 바로보기》(현암사)는 '숙명인', '성신클럽' 등의 여대 앞 서점에서 찾는 학생이 많다.

대학가에서 읽히는 책들은 위기의 시대에 길을 찾는 지식인들의 고뇌와 방향이 그대로 반영돼 있다. 대체로 거대담론에서 미시담론으로의 선회, 욕망의 전전화, 신자유주의와 제3의 길에 대한 비판적 접근 등이 큰 흐름으로 자리잡고 있다. 문화비평·생태주의·페미니즘 등의 다양한 독서가 공존하기도 한다. '논장'의 정하경 대표는 "요즘 대학생들은 예전보다 관심이 다원화된 경향이 두드러진다"고 말한다.

대학가 서점인들이 이구동성으로 지적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계간 문예지·학술지에 대한 수요가 급감하고 있다는 점이다. 《당대비평》·《창작과 비평》·《인물과 사상》 등 극소수의 잡지를 제외하고는 거의 읽지 않는다고 한다. 한 서점 주인은 "《말》지가 주간지인지 월간지인지도 모르는 학생이 있다"며 안타까워한다. 대학생들보다는 오히려 30대 이상의 직장인들이 진보적 잡지를 구입해 읽는다는 말도 덧붙인다.

대학생들의 독서경향이 이분화되는 양상을 지적하는 서점인들도 많다. 가볍고 쾌락적인 책읽기에 몰두하는 층과 무겁고 진지한 주제를 다룬 인문사회과학 도서를 탐닉하는 층으로 나뉜다는 것이다. '오늘의 책'의 김병두 대표는 "전반적으로 독서경향이 가벼워졌지만, 소수의 열광적 독자를 중심으로 진지한 인문서와 이념도서를 찾는 컬트화 경향이 눈에 띈다"고 한다.

대학가 서점은 한 시대의 정신적 풍토를 가장 빠르게 반영하는 곳이다. 그런 의미에서 아직은 희망이 남아 있다. 이념의 혼란을 극복할 모델을 진지하게 찾고 지배질서를 뒤집는 상상력이 여전히 주목받고 있기 때문이다. 침체일로를 걷고 있는 출판계도 젊은 독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박천홍 기자